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1. 전주 동향

음식료

2월 첫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1.0% 상승. 원/달러 환율은 1,123.7원으로 하락. 곡물가는 옥수수(-1.1% WoW), 소맥(-1.3% oW), 대두(-0.4% WoW), 원당(+0.9% WoW) 기록. 옥수수는 중-미 무역 협상의 속도가 기대감을 하회하는 가운데 일부 기술적 매도 물량 유입이 가격 하락 이끌. 다만 미국 옥수수 재고량 전망치 하향 조정 전망이 가격 추가 하락을 방어. 소맥은 미국 소맥 기말 재고량 전망치가 상향 수정될 것이라 관측이 확대되며 전주 대비 가격 1.3% 하락. 대두는 중-미 정상회담 협상이 3월 이전까지 지연되며 시장의 우려가 확대. 그러나 미국 대두 생산 및 재고량 전망치 하향 수정 관측이 가격 낙폭을 제한하며 전주 대비 가격 0.4% 하락. 원당은 주초 브라질 해알화 강세와 원유 가격 상승이 원당 가격 상승을 이끌었으나, 주 후반 유가 하락하며 에탄올 경쟁력 감소해 가격 상승폭 제한, 전주 대비 0.9% 상승에 머무름

중국 라이신 시장 가격 약세 지속. 중국 춘절(2/4-2/8일) 앞두고 대부분의 사료업체 재고 물량 확보하며 수요 둔화. 재고 물량은 35~45일간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예상. 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주 대비 라이신 가격 약세. 일부 제조업체 손실 기록. 수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메티오닌은 중국 국내 제조업체들의 공급 증가로 단기간 약세 지속 전망. 라이신과 함께 사료 업체 춘절 대비한 메티오닌 재고 비축 이미 완료한 상황. 12월 Solid 메티오닌 수입 -8.0%, 수출 +36%, Liquid 메티오닌 수입 -57%, 수출 -19%. 스레오닌은 시장 약세 기조가 장기화되며 현재는 바닥 시그널 발생. 기존 제조업체는 손실 발생해 생산 조정에 돌입(Ningxia 공장은 2월까지 생산 중단 지속). 수출은 전달 대비 7% 감소. 트립토판은 향후 중국 제조업체 생산 개파 증가가 예상되며 가격 약세 기조는 지속될 전망. 트립토판 생산의 높은 비용 부담은 제조업체의 손실 가능성도 제고시킴. 12월 전달 대비 수입 -41%, 수출 +77% 기록

국내 이벤트는 1. (담배) 18년 담배 판매량 2년 연속 하락세(-1.5% YoY)나 감소폭은 둔화 2. (CJ프레시웨이) 콜롬비아 고급 커피 브랜드 '후안 발데즈(Juan Valdez)' 국내 독점 공급 계약 3. (CJ제일제당) 19년 상반기 내 쉬완스컴퍼니 인수 종료시, 기존 '비비고' 브랜드 대신 아시아 푸드를 현지화한 쉬완스 기존 브랜드 '파고다'로 미국 시장 공략 방침 4. (하이트진로) 2010년 이후 9년만의 맥주 신제품 19년 상반기 내 출시 계획 5. (CJ제일제당) 2/21일부터 햇반과 어묵, 장류 등 7개 품목의 가격 인상 결정

2. 금주 전망

음식료 섹터 의견 Overweight 유지, 19년 음식료 영업이익 전년비 12.6% 성장하며 KOSPI 영업이익 전년비 1.0% 감소 대비 우수한 상대 성과 예상. 음식료 4Q18 실적발표 중. 4Q18 실적과 19년 전망에 따른 종목별 주가 흐름 차별화 예상

4Q18 실적발표 진행 중. 일회성 비용을 제외할 경우 전년도 영업일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대부분 컨센서스 부합 및 상회하는 실적 흐름 발표. 실적 발표가 끝난 기업 중 실적 호조 및 19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업체는 대상, 동원F&B 등. 실적 부진 및 19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은 하이트진로 현대그린푸드, 선진 등. 대상은 18년 비용 통제 흐름을 보여주며 과거 실적쇼크를 기록했던 우려감이 해소. 해외 부문은 구조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짐. 대상베스트코의 경우 적자폭을 전년대비 70억원 축소 시키며 19년 흑자 전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 동원F&B는 어가 하락 효과 및 매출 고성장 이어지며 호실적 달성, 19년 목표도 매출액 10% 성장, 영업이익 15%~20% 성장으로 설정. HMR, 참치, 즉, 유가공, 유통부문 등 기존 매출 성장 사업부의 성장성이 이어질 전망. 하이트진로는 1Q19까지 공장 설비 변경관련 일회성 비용 반영이 부담 요인. 맥주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비용 지출 규모가 미정인 상황으로 영업이익의 증가 감소 방향성이 불확실. 현대그린푸드는 최저임금 인상 110억원 반영이 19년 추가적인 부담 요인. 선진은 저돈가 상황지속과 농장확보가 더디게 진행되며 양돈생산량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관심종목

KT&G (033780)

4Q18 실적은 컨센서스 부합하며 3분기까지 이어진 감익 흐름 탈피 예상. 18년 연간 기준 일반담배 시장 10% 감소, 반면 전자담배 시장이 8~9% 성장하며 전체 담배 시장은 1.0~1.5% 감소 예상. 18년 기준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은 10% 초반, 4Q18 기준 점유율은 일시적으로 15%로 상승. 밀 하이브리드 효과. 수출담배는 4Q18 까지 부진한 기조는 유지, 19년 재고부족 제품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출 재개 예상. 1Q19~2Q19에 JUUL의 국내 출시가 예상되나 국내 전자담배 규제와 트렌드 감안시 성공여부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 19년 실적 성장의 전환점으로 판단, 수출담배 재고보충 발생이 주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10만원을 하회하는 주가 수준에서 배당 매력 부각 예상

삼양식품 (003230)

4분기는 중국 총판 계약 변경으로 11~12월 수출 라면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유베이와의 신규총판 계약으로 1~2월 양호한 수출 재개 예상. 19년 중국 라면 수출 성장률 목표는 50%로 오프라인 영업력에 강점이 있는 총판 계약의 긍정적인 효과 기대. 수출라면은 19년 중국 라면 수출 성장률 타겟은 50%. 오프라인 유통에 강점이 있는 유베이와의 총판계약으로 기존 온라인/오프라인 5:5 비중에서 오프라인 비중 확대 기대(중국 라면 시장은 온라인/오프라인 비중 2:8로 추산). 국내라면은 2020년 12월 신규 공장 완공 목표이나 아직 착공 일정은 미정, 600억원 규모의 투자이며 착공 후 완공까지 1년정도 소요될 예정. 현재 공장 가동률은 70% 수준이며, 100억원을 소폭 하회하는 투자로 노후화 라인 대형화 및 자동화 개보수 완료. 개파 20% 증가 효과 있었으며 기존 공장으로 6,000억원 매출 예상, 신규공장 완공 시 4,000억원 개파 확대 예상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외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2월 11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2월 11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2월 11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